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규철. 레 오 952-836-7117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서 42:1-4.6-7 제2독서 사도행전 10:34-38 복음 루카 3:15-16.21-22

◎말씀 '세례의 기쁨과 행복'

찬미예수님!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린 시절 세례성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다들 한번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다음의 몇 가지로 해석합니다.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겸손하신 분이 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기 위해, 당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시기 위해, 유대인들의 세례가 아닌 당신의 세례를 세우기 위해' 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근거있는 해석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시기 위해' 서입니다, 즉 당신의 신원을 공적으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특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신원을 공적으로 직접 말씀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표현은 하지만, 세례받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오히려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를 생각해 보면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났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집을 떠났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성사는 하느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있다가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까맣게 잊고 있던 하느님 자녀의 지위와 권리를 되찾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서 말했듯 '세례' 는 하느님의 사랑 받는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하는 성사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의무로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스스로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하는 것이고, 간절히 원했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족쇄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행복이어야 합니다.

일 자	전례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월11일(화)	연중 제1주간 화요일	저녁7시30분	주일헌금.구유 교무금	\$ 1,612.00 \$ 3,000.00
1월12일(수)	연중 제1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자선비	\$ 205.00 \$ 145.00
1월13일(목)	연중 제1주간 목요일	저녁7시30분	미사예물 성물방	\$ 1,568.00 \$ 1,970.00
1월14일(금)	연중 제1주간 금요일	저녁7시30분	도네이션	\$ 530.00
1월15일(토)	연중 제1주간 토요일	저녁7시30분	합계	\$ 9,030.00
1월16일(일)	연중 제2주일	오전9시(학생) 오전11시(교중)	미사참례자	학생/아동:3명 성인:121명
교무금 봉헌자	정두용(9-12월)김기환(1-12월)한삼(12-1월)장애익(1-4월)구준모.백정심(1-2월)김규철.윤재경.김계숙.김병길.박원상.김상돈.이서향.김규대.지복원(1월)			

◎신앙생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가톨릭교리상식

◎세례명을 바꿀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세례명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15년부터 적용된 원칙으로 춘계 주교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른 것입니다. 세례명 변경은 물론, 견진성사 후에 새로운 이름을 덧붙이는 것도 더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명 변경 불허를 융통성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세례 때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은 훌륭한 신앙의 선조였던 성인을 본받으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명이 담은 이러한 내용과 의미를 감안한다면, 신앙생활의 중간에 세례명을 바꾸는 것은 처음부터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세례명을 선택할 때, 단지 어감이 좋고 부르기 편하기 때문에 선택한다던가, 해외 유명인의 이름을 따오기 위해 고르는 것 등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선택은 세례명을 통해 추구하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미 중세 시대에 이교도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선택하는 풍습이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나곤 했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례명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교식 이름만을 세례명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지금도 교회법에 비슷한 규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성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교회법 제855조)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만약, 불리는 이름에 민감한 주변분들, 가령 어린 자녀들이 세례명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면 차라리 이렇게 권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르는 방식을 바꿔보라고 말이죠. 세례명은 많은 경우에 성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언어권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미카엘은 라틴어식 표현으로, 영어로는 마이클, 프랑스어로는 미셸, 스페인어로는 미겔, 러시아어로는 미하일 등으로 불립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다른 표현으로 부르다고 세례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목표로 삼을만한 성인의 삶을 비롯한 세례명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요?

◎교황 무류성 교리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교황님이라고 항상 오류가 없을 수 있죠?

사람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삽니다. 남성은 한 아이의 아버지로 살 때도 있지만, 남편으로 살 때도 있고, 누군가의 직장 상사는 물론, 친근한 친구의 역할을 수행할 때도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행동과 말은 전부 다르기 마련입니다. 교황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으뜸 제자였던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서 길거리를 지나가던 어느 사람에게 친근하게 말을 붙이실 수도 있죠.

교황 무류성이란, 교황님께서 어떤 역할로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오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류성 교리는 교황님께서 교황좌에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공적인 조건을 맞춰 진리를 선포할 때에만 적용이 되며, 내용상으로도 신앙이나 도덕과 관련된 가르침에 국한됩니다.

지금껏 교황님께서 교황 무류성을 발동하여 말씀하신 사례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습니다. 이렇듯, 교황 무류성 교리는 교황님 개인이 오류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교황님께서 가르치는 권한, 즉 교도권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행사할 때, 그 가르침에 오류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김정필 .라파엘 /윤태옥 .안나/원정은 .카타리나
백정심 .막달레나/기은희 .마리아/김나미 .로사
김옥륜 .세실리아/추소연 .세실리아/엄안드레아
김숙자 .수산나/김초지 .마리아/박모란 .글라라
이규청 .제노비아/엄모니카/배미성 .오틀리아
신용경 .그레고리오/이상일 .마리아/남필레 .마리아
고공자 .벨라뎃다/김화진 .요안나
-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 박울리아 .916-990-6531/박프란치스코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여길선요안나 영혼	김근수요한가족	생	조유원요셉 영육건강	조유희밀지다
연	전기레베레나 영혼	조영진안드레아	생	감사미사	김어거스틴
연	이돈수알폰소 영혼	이주엽발렌티노	생	가족들 영육건강	김헬레나
연	서정선엘리사벳 영혼	안윤석	생		
연	윤명화 영혼	윤영자마리아	생		
연	(기일)어머니 송석순 안나 영혼	김상돈도미닉	생		
연	조창래신부님, 이태석신부님 영혼	백정심막달레나	생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예비신자 환영식

일시:2월4일(목)오후8시.구사제관(성가대방)
 미사전에 전교를 위한 기도를 바칩시다.
 적극적인 활동과 인도 바랍니다.

2. 2022년 상반기 사목총회

일시:22일(토)오전10시.엘리사벳방
 모든 사목위원께서는 필히 참석 바라며, 각부서
 단체장께서는 2022년 모임/행사/사업계획을 19
 일(수)까지 총무부장께 제출바랍니다.
 문의:총무부장 장현철.엘리아

3. 모임안내

연령회(신년모임):9일(일)교중미사후.소나무집
 꼬미시움:16일(일)교중미사후.엘리사벳방

4. 아빌라데레사회 회원모집 및 신년모임

신년모임:29일(토)오후6시.구사제관
 새회원을 적극 환영합니다.
 문의:최화숙 고르고니아(916-747-8431)

5. Donation Statement

2021년 텍스리턴 관련 Donation Statement (교
 무금 포함)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세요.

6. 포르투갈 2023 세계 청년대회 참가 안내

기간:7월30일(토)-8월6일(토)
 대상:18세~35세 청년 / 신청기한:1월9일까지
 문의:청년부 회장 최스텔라 (916-294-5578)

7. 감사합니다(도네이션)

신부님 미사예물(\$1,568) 최선옥 제노베파(\$30)

8. 제단체장 임명장 수여

다음 주 교중미사 때 2022~2023년도 신임 단체장
 임명장 수여식이 있습니다. 신임 단체장님들께서
 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천이 되지 않은 단체에서는 13일(목)
 까지 신부님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22년도 봄.여름학기 임원 안내

찬미반 부장:피효진 아그리피나
 복사반 부장:김지연 베로니카
 학생부 차장:김나운 프리스카
 자모회 부장:박모란 글라라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기 바라며, 학부모님
 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행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사항)

본당내 특정 단체명의로 활동시에는 본당시설
 이용 또는 예산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단체
 장은 최소2주전에 행사계획서를 제출.승인받고
 행사 종료후에는 최단시일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양식:사무실비치)

● 병자성사 및 봉성체 (신부님께 개별 신청)

● 성당 내에서의 소규모 단체모임 허용

본당 신부님께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코비드19 관련, 교구 및 본당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본당 출입시 손세정제 와 마스크 사용을 생활화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가책.기도책은 개인이 지참하시기 바라며
 의자앞 거치대에 개인 물품은 치워 주시기 부탁
 합니다.

화답송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전례봉사	주님세례축일(1월9일)	연중제2주일(1월16일)	연중제3주일(1월23일)	연중제4주일(1월30일)
미사해설	한상.토마스	김은영.폴리나	최금주.요안나	이순자.요안나
복사	송돈희.요셉	이대원.베드로	장현철.엘리아	최진호.다니엘
헌금위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 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 (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 (바오로)
916-361-2020 (Bradshaw)
916-361-0433 (Elk Grove)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 (호영베드로)
916-366-0123

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 (올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 (스테파노)
김옥기 (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서은미 부동산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 (안나) 916-600-1936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 #P)
최병엽 (바오로)
916-363-2345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 (클라라)
916-342-7072

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 (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Print N Signs

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

장 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Aeyon Lee RPh
(이애연 플로렌시아)
개인면담 (사전예약필요)
교중미사후 친교실 (격주)
916-276-1834
aeyon7511@gmail.com

성당
FM주파수
107.9
(야외미사)

성당제출용
CHECK 발행할 때
Payee to:
St.J.H.C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안내

입금은행: Wells Fargo
예금주: Pastor of St Jeong-Hae Elizabeth
계좌번호(Account#): 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